

9.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그림과 함께 사용할 문구를 만들어 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보 기> —

[조건]

- 자동차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됨을 드러낼 것.
- 대구의 표현을 사용할 것.
-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할 것.

- ① 북극곰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위해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위해
- ② 자동차를 집에 두고 나와 씩씩하게 걸으면 살림은 두 배로 늘고, 건강은 열 배로 좋아져요.
- ③ 자동차는 편리함을 주지만 북극곰과는 헤어져야 합니다. 북극곰의 친구가 되려면 불편함을 선택해 주세요.
- ④ 열병을 앓는 지구를 위해 하루만 자동차의 시동을 꺼 주세요. 지구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북극곰이 응원합니다.
- ⑤ 늘어나는 우리들의 자동차, 줄어드는 북극곰의 집 집을 되찾아 달라고 애원하는 북극곰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세요?

10. <보기>의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책은 기억과 상상을 ㉠ 확산시켜 준다. 기억과 상상을 넓혀 주는 책을 ㉡ 읽음으로서 인간은 현재의 삶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를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 ㉢ 그래서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은 망각된 기억이며 죽은 상상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 서가에 꽂아 두는 것만으로 마치 그 내용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은 것처럼 믿고 싶어 하는 것이다. ㉤ 무조건 비싸다고 다 좋은 책은 아니다. 그러나 책의 소유는 내용의 소유이어야 한다. 내용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한다.

- ① ㉠ :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확립'으로 바꿔야겠어.
- ② ㉡ :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으므로, '읽음으로써'로 고쳐야겠어.
- ③ ㉢ : 접속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④ ㉣ : 필요한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책들'이라는 말을 보충해야겠어.
- ⑤ ㉤ :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므로, 삭제해야겠어.

11.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ㄱ~ㅁ을 고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 아래 제시된 문장들은 모두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 안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문장을 고쳐 볼까요?

ㄱ. 그녀는 웃으며 걸어오는 친구를 맞았다. [그녀가 웃음]
 ㄴ. 민수는 영이와 철수를 만났다. [민수가 두 사람을 만남]
 ㄷ. 나는 그에게서 김 교수의 책을 건네받았다. [저자가 김 교수인 책]
 ㄹ. 신철수와 김지영이 결혼하였다. [둘이 부부가 되었음]
 ㅁ. 남편은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을 더 좋아함]

- ① ㄱ의 '웃으며'를 '친구들'의 뒤로 옮긴다.
- ② ㄴ의 '민수는' 뒤에 반점(.)을 첨가한다.
- ③ ㄷ의 '김 교수의'를 '김 교수가 지은'으로 바꾼다.
- ④ ㄹ의 '신철수와 김지영이'를 '신철수가 김지영과'로 바꾼다.
- ⑤ ㅁ의 '드라마를' 뒤에 '보는 것들'을 첨가한다.

12 다음은 '아픈 증세'와 '치료 행위'에 관한 어휘들이다. 용례가 잘못 제시된 것은?

공유하는 의미	어휘	용례	
아픈 증세	걸리다	나는 가끔 옆구리가 <u>걸리곤</u> 한다.	... ①
	쭈시다	왜 싫다는 동생을 <u>쭈서서</u> 놀자고 하니?	... ②
	아리다	바늘에 찔린 손끝이 <u>아렸다</u> ③
치료 행위	놓다	의사가 아프지 않게 주사를 <u>놓았다</u> ④
	뜨다	할머니께서는 뺨 자리에 <u>뜸을 뜨셨다</u> ⑤

[13 ~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다시 목련 김광균

사월이 오면
 목련은 왜 옛마당을 찾아와 피는 것일까
 어머니님 가신 지 스물네해
 무던히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코
 잔디잎이 눈을 뜰 때면
 어머니님은 내 옆에 돌아와 서서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신다

하루 아침엔 날이 흐리고
 하늘에서 서러운 비가 나리더니
 목련은 한잎두잎 바람에 진다

목련이 지면 어머니는 옛집을 떠나
 내년 이맘때나 또 오시겠지
 지는 꽃잎을 두손에 받으며
 어머니님 가시는 길 울며 가볼까

[A]

(나) 다리 위에서 이용악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꺾꽂 꿰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수집 아이

[B]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장명등 : 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밤에 불을 켜는 등.

(다) 고향의 천정(天井) 이성선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높고
 할머니는 메밀밭에서
 메밀을 꺾고 계셨습니다.

늦여름의 하늘빛이 메밀꽃 위에 빛나고
 메밀꽃 사이사이로 할머니는 **가끔**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시었습니다.

해마다 밭둑에서 자라고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는
 늘 그러했습니다만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버리시고
 나도 벌써 몇 년인가
 그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후

오늘 저녁 명석을 펴고
 마당에 누우니

온 하늘 가득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할머니는 나를 두고 메밀밭만 저승까지 가져가시어
날마다 저녁이면 메밀밭을 매시며
메밀꽃 사이사이로 나를 살피시고 계셨습니다.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자아 성찰의 자세가 드러난다.
 - ② (가)와 (다)에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난다.
 - ③ (나)와 (다)에는 대상을 딱하게 여기는 마음이 드러난다.
 - ④ (가)~(다)에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다)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난다.

14. [A]와 [B]에 드러나는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회상의 매개물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다.
 - ② 명사형으로 연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낸다.
 - ③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한 감정을 드러낸다.
 - ⑤ 대립적인 공간을 제시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한다.

15.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시화를 그리려고 한다.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호 : 계절적 배경이 중요하니 목련이 피어 있는 봄날의 모습을 잘 표현해야겠어.
- ② 희선 : 작품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마당이 있는 집을 배경으로 목련 한 그루가 서 있는 풍경을 그려 보자.
- ③ 소원 : 화자의 현재 모습을 고려하여 어른이 된 화자가 목련을 바라보고 서 있는 장면을 그리는 건 어때?
- ④ 해주 : 비 오는 날 목련 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시의 정서가 잘 나타나니 이 장면을 그리는 게 좋겠어.
- ⑤ 은수 :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여 목련이 핀 아들의 무덤 앞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리도록 하자.

16. <보기>를 바탕으로 (다)가 창작되었다고 가정할 때, '고려 사항'과 '반영 결과'가 잘못 연결된 것은? [3점]

< 보 기 >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참 무심했지요...... 돌아가신 후 할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았으니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전 여전히 철부지인가 봅니다. 오늘 문득, ㉡메밀밭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는 저를 밭둑에 두고 한참이나 밭일을 하셔야 했지요. 그 때는 할머니가 일 때문에 ㉢이따금씩 저를 살피실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지금 이 순간에조차 얼마나 ㉤살뜰히 보살피고 계신지를......

	고려 사항	반영 결과
①	㉡를 잘 드러내기 위해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다.	'아주 커서도 덜 자란 나'
②	㉠를 연상하도록 이끌어 준 대상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별로 피어 있는 어릴 적 메밀꽃'
③	㉠와 ㉡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도록 연을 구성한다.	2연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④	㉠와 ㉡가 대비되도록 적절한 부사어를 사용한다.	'가끔', '날마다'
⑤	㉡를 잘 드러내기 위해 그 내용을 제시하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날마다~살피시고 계셨습니다'

[17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당파(黨派)를 없애지 않고서는 전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당파 싸움이 음식 싸움이나 다름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령 십여 명이 모여 앉아 연회(宴會)를 차리는 경우에 그들이 서로 예(禮)로써 사양하지 않고 각자가 남보다 많이 먹기 위하여 욕심을 낸다면 반드시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물으면 “저 사람이 나보다 밥을 많이 먹고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다른 법이거늘, 저 사람이 너무나 무례하게 굴며, 밥을 흐트르드리고 국을 흘려, 저 사람이 너무나 공순(恭順)하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명은 그 어떤 구실이 있더라도 그 원인을 헤아리면 결국 서로 많이 먹기 위한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파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저 사람의 직위가 나보다 높고 저 사람의 관록이 나보다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저 사람이 임금을 저버리고 국사(國事)를 그르쳐서 불충(不忠)하기 그지없고, 역모를 꾸미며, 개인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불순(不順)하기가 비할 데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명의 말들이 더러 근거가 있는 듯하더라도 그 근간을 헤아려 보면 직위와 관록의 싸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싸움을 결판내는 것은 힘입니다. 힘이 모자라면 응원할 이를 청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모이면 당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파를 보호하려는 심정은 응원을 구하기 위함이고, 응원을 구하려는 것은 힘을 모으기 위함이며, 힘을 모으려는 심리는 서로 많이 먹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봉당(朋黨)은 그 출발부터가 너무나 비열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크게 깨달으시어 탕평(蕩平)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편당적(偏黨的)인 악습을 일소(一掃)*하려 하시는 것은 신의 천견(淺見)*으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월(日月)같이 밝은 빛으로써 아직도 다 비추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여길 따름입니다. 그것은 봉당의 권외에 서 있는 서북 지방의 백성들이며, 신분상 하층에 속해 있는 빈천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본래부터 봉당의 싸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탕평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평한 정책을 키우시어 편협하고 지엽적인 인재 선발 방법을 개혁해야만 한 나라의 인재들이 빠짐없이 등용될 것입니다. 이보다 큰 국가의 행복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 일소(一掃) : 모조리 쓸어버림.
* 천견(淺見) : 얕은 견문이나 견해. 자기 의견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17. 위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현상의 특징을 대비한다.
- ② 문답 형식을 사용해 통념을 부정한다.
- ③ 현상의 변화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한다.
- ④ 타인의 견해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한다.
- ⑤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문제를 제시한다.

18 <보기>의 ‘공자’의 입장에서 위 글에 나타난 당대 현실에 대해 할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공자(孔子)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상으로 여겼다. 공자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예(禮)라고 말했으며, 이러한 예의 근본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관리와 백성 모두가 과거의 악습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예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② 예를 바탕으로, 잘못된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없는 현실을 개혁해야 합니다.
- ③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예에 맞게 해야 여럿이 힘을 모아 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 ④ 당으로 나뉘어 남을 음해하며 이익을 다투는 것을 그만두어야 예의 근본 취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 ⑤ 백성들의 원망을 귀담아 듣는 자세는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관리들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19 ㉠과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벌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 ② 왕의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신하들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 ③ 국가 제정이 충분해야 백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 ④ 신하들의 특권을 보장해 주어야 그들이 나라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 ⑤ 공평한 정책을 펴서 인재 선발 방법을 개혁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20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평양으로 장사를 떠난 이춘풍은 기생 추월의 유혹에 넘어가 돈을 다 털리고 추월의 집 하인이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처는 남장을 하고 신임 평양 감사의 회계 비장이 되어 평양으로 간다. 평양에서 춘풍의 처는 추월을 문초하여 춘풍의 돈을 돌려주도록 한 뒤 먼저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귀가를 기다린다.

춘풍이 비장 덕에 돈 받아 실어 놓고 갔, 망건, 의복 치레하여 은안준마(銀鞍駿馬) 높이 타고 경성을 올라와서 제 집을 찾아가니, 이때 춘풍의 처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소매 잡고 ㉠ **갑작 놀라며** 하는 말이,
 “어이 그리 더디던고. 장사에 소망 얻어 평안히 오시니까.”

춘풍이 반기면서,
 “그새 잘 있던가.”
 춘풍이 이십 아리 돈을 여기저기 벌여 놓고 장사에 남긴 것이 의기양양하니,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주찬을 소담히 차려 놓고,
 “자시오.”
 하니, 저 잡놈 거동 보소. 없던 교만한 태도 지어 내어 제 아내 꾸짖으며,
 “안주도 좋지 않고 술 맛도 무미하다. 평양서는 좋은 안주 [A] 로 매일 장취하여 입맛이 높았으니 평양으로 다시 가고 싶 [L] 다. 아무래도 못 있겠다.”
 젓가락도 그릇 박고 고기도 씹어 버리며 하는 말이,
 “평양 일색 추월이와 좋은 안주 호강으로 지내더니, 집에 오니 온갖 것이 다 어설피다. 호조 돈이나 다 셈하고 약간 전량 소쇄하여 전 주인에게 환전 부치고 평양으로 내려가서 작은집과 한가지로 음식을 먹으리라.”
 그 거동은 차마 못 불러라. 춘풍 아내 거동 보소. 춘풍을 속이려고 상을 물려 놓고 황혼시에 밖에 나가 비장 복색 다시하고 담뱃대를 한 발이나 빠져 물고 대문 안에 들어서서 기침하고,
 “춘풍 왔느냐.”
 춘풍 자세히 보니 평양서 돈 받아 주던 회계 비장이라. 춘풍이 황겁하여 버선발로 뛰어 내달아 복지하여 여쭙고,
 “소인이 오늘 와서 날이 저물어 명일에 택 문하에 문안코자 하옵더니, 나으리 먼저 행차하옵시니 황공만만하여이다.”

...(중략)...

춘풍이 어찌지 못하여 들어오니 비장이 가로되,
 “그 때 추월에게 돈을 진작 받았느냐.”
 춘풍이 왈,
 “나으리 덕택에 즉시 받았나이다. 못 받을 돈 오천 냇을 일조에 다 받았사오니, 그 덕택이 태산 감사이다.”
 “그 때 맞던 매가 아프더냐.”
 “소인에게 그런 매는 상이로소이다. 어찌 아프다 하리이까.”
 비장이 왈,
 “네 집에 술이 있느냐.”
 춘풍이 일어서서 주안을 드리거늘,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은 어디 가고 내게 내외시키느냐. 네 계집 빨리 불러 술 준비 못 시킬소냐.”
 춘풍이 황겁하여 아무리 찾은들 있을소냐. 들며 나며 찾아도 없어 제 손수 거행하니, 한두 잔 먹은 후에 취담으로 하는 말이,
 “네 평양에서 추월의 집 사환할 제 형용도 참혹하고 거지 [B] 중 상거지라. 추월의 하인 되어 봉두난발* 현 누더기 감발 [L] 버선 어떻더냐.”
 춘풍이 부끄러워 제 계집이 문 밖에서 엿듣는가 민망하건마는 비장이 하는 말을 제가 막을손가. 좌불안석하는 꼴은 혼자 보기 아깝더라.
 비장 왈,
 “남산 밀 박 승지 댁에 가 술이 대취하여 네 집에 왔더니, 시장도 하거니와 해갈(解渴)이나 하계 갈분(葛粉)이나 한 그릇 하여 오라.”
 춘풍이 황공하여 밖으로 내달아서 아무리 제 계집을 찾은들 어디 간 줄 알리오. 주적주적하더라. 비장이 꾸짖어 왈,
 “네 계집을 어디 숨기고 나를 아니 뵈는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니,
 “몹쓸 놈이로다. 평양 일을 생각하여 보라. 네가 집에 왔고 그리 체중찬 체하느냐.”
 춘풍이 갈분을 가지고 부엌에 나가서 죽 쑤는 꼴은 차마 우습더라. 한참 항적여서 쑤어드리거늘, 비장이 조금 먹은 채하고 춘풍을 주며,
 “먹으라. 추월의 집에서 깨어진 한 사발에 누룽밥 토장덩이에 이지러진 숟가락도 없이 먹던 생각하고 먹으라.”
 춘풍이 받아 먹으며 제 아내가 밖에서 다 듣는가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비장이 왈,
 “밤이 깊었으니 네 집에서 자고 가리라.”
 하고 의복과 갓 망건을 벗으니, 춘풍이 감히 가란 말은 못하고 속마음으로 해포 만에 그리던 아내 만나서 잘 잘까 하였더니, 비장이 잔다 하니 속으로 민망히 여기더라.
 관망 탕건 벗어 옷을 휘휘 벗은 후 일어나니 완전한 계집이라. 춘풍이 ㉠ 깜짝 놀라며 자세히 보니 제 계집이라. 춘풍이 어이없어 묵묵무언 앉았으니, 춘풍의 처 달려들으며,
 “이 사람, 인제도 나를 모르시오.”
 춘풍이 그제야 아주 깨닫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마주 잡고,
 “이것이 웬일인가, 평양 회계 비장으로서 지금 내 아내 될 줄 어이 알리. 이것이 생시인가 꿈인가 태중인가, 귀신이 내 눈을 어리어 이리한가.”
 하며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원앙금침에 옛정을 다시 이뤄 은근한 정이 비할 데 없더라.

- 작자 미상, 「이춘풍전」 -

* 봉두난발 : 머리털이 속대강이같이 험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 파경(破鏡)이 부합(附合)하여 : 깨어진 거울이 서로 맞대어 붙어.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순종적인 아내 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경제 활동을 소홀히 여겼던 당대의 사회상을 비판하고 있다.
- ③ 탐관오리(貪官汚吏)가 판치는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 ④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과 허위의식을 지닌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⑤ 사회적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몰락하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건]	[내용]
사건 I ↓	춘풍이 귀가하여 춘풍의 처에게 호기를 부림.
사건 II ↓	비장이 춘풍을 찾아와 대화를 나눔.
사건 III	춘풍과 춘풍의 처가 대화를 나눔.

- ① ‘사건 I’에서 보인 춘풍의 태도가 ‘사건 II’를 야기하고 있군.
- ② ‘사건 II’에서 비장은 춘풍의 과거 행적을 춘풍의 처에게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③ ‘사건 III’에서는 춘풍의 처가 꾸민 일이 종결되고 있군.
- ④ ‘사건 III’에서 춘풍은 춘풍의 처에게 ‘사건 I’에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군.
- ⑤ ‘사건 I → 사건 II’, ‘사건 II → 사건 III’으로 바뀔 때 ‘복색’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군.

22. ㉠, ㉡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① 불만을 드러낸 것		상대의 호감을 유발하기 위한 것
② 불안감이 표출된 것		만족감이 표출된 것
③ 당혹감을 표출한 것		감정을 상반되게 표현한 것
④ 감정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		기대가 충족되어 나타난 것
⑤ 의도적으로 꾸며낸 것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

23. [B]를 고려할 때, [A]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를 한자 성어로 표현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호가호위(狐假虎威) ② 정저지와와(井底之蛙)
- ③ 인과응보(因果應報) ④ 감탄고토(甘吞苦吐)
- ⑤ 허장성세(虛張聲勢)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탈은 일반적으로 사회의 규범을 어긴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탈을 하게 되는 것일까? 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해 왔다. 일탈의 원인을 ㉔ 규명(糾明)하려는 이러한 연구는 크게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나뉜다.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로 본 이론들은 주로 일탈자의 생물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요인에 ㉕ 주목(注目)하였다. 그 중에서 '좌절-공격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 대표적 이론의 하나였다. 이 이론에서는 일탈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욕구의 좌절로 보았다.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대상에 대해 ㉖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대상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그 대상이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라도 찾아 분풀이를 한다고 보았다. 일탈은 결국 심리적 욕구의 좌절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밝히면서 인간의 심리를 주목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일탈 자체가 사회 구조와 깊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일탈의 궁극적인 책임을 개인에게서만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한편, 일탈의 원인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이론들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낙인이론'은 일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 이론에서는 일탈을 낙인의 결과로 보았다. 낙인이란 어떤 행동을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㉗ 규정(規定)하는 행위이다. 규범에 어긋나는 크고 작은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그들 모두가 사회에서 일탈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낙인찍히고 비난을 받게 되면 이것이 비로소 일탈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동본(同姓同本)끼리 결혼하는 경우 아무도 이 결혼을 문제 삼지 않으면 이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낙인찍으면 이것도 일탈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이론에서는 어떤 행동의 성격보다 그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여건을 더욱 중요하게 보았고, 그에 따라 일탈이 매우 상대적인 것임을 ㉘ 부각(浮刻)해 주었다.

또한 낙인이론은 한번 낙인이 찍히면 그 낙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일탈자로 낙인찍힌 자는 결국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후에도 일탈이 지속된다고 보았다. 낙인이론은 이와 같이 일탈이 낙인에 의한 사회적 결과물임을 강조함으로써 일탈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낙인이론은 이미 규범을 어긴 사람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만 초점을 맞추어 애초의 행동을 ㉙ 유발(誘發)시킨 다른 원인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24. 위 글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론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
- ② 대비되는 관점을 지닌 두 이론을 소개한다.
- ③ 특정 이론의 문제점에 대한 글쓴이의 대안을 제시한다.
- ④ 기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한다.
- ⑤ 두 이론의 공통점을 확대 적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

25. '좌절-공격 이론'의 관점에서 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욕구 충족의 포기
- ② 심리적 안정감의 표현
- ③ 욕구의 좌절로 인한 반응
- ④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실천
- ⑤ 열세한 대상에 대한 보호

26. <보기>는 '신입 사원 ○○의 하루'를 만화로 구성한 것이다. '낙인이론'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낙인 때문에 '○○'가 앞으로 일탈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지겠군.
- ② '○○'가 지각을 하게 된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겠군.
- ③ '○○'는 회사에서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벗기가 쉽지 않겠군.
- ④ 만약 직장 사람들이 '○○'를 낙인찍지 않았다면 그의 지각은 일탈로 보기 어렵겠군.
- ⑤ 일탈자라는 낙인 때문에 '○○'는 앞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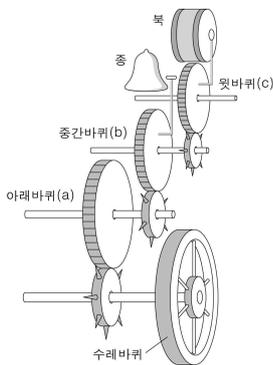
27.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밝힘.
- ② ㉡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③ ㉢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④ ㉣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 ⑤ ㉤ :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발생함.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시대의 거리 측량 수레인 기리고차는 겉으로 보면 말이 끄는 평범한 수레의 모습이다. 다만 수레에 앉은 사람 옆에 종과 북이 달려 있다는 점과 수레 내부에 세 개의 톱니바퀴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리고차는 일정한 거리를 움직이면 종 또는 북이 자동으로 울리는 구조였지만, 종이나 북이 울릴 때마다 그 횟수를 사람이 책에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반자동 거리 측량 수레에 해당한다.

오른쪽 그림을 보자. 기리고차는 수레바퀴에 세 개의 톱니바퀴, 즉 ‘아래바퀴’(a)와 ‘중간바퀴’(b), 그리고 ‘윗바퀴’(c)가 순서대로 연결된 구조로 돼 있다. 기리고차 수레바퀴는 둘레가 10자(尺)*이다. 수레바퀴가 12회 회전하는 동안 아래바퀴(a)는 한 번 회전하는데, 이때 수레가 움직인 거리는 120자가 된다. ㉠아래바퀴(a)가 15회 회전하는 동안에 중간바퀴(b)는 한 번 회전하게 된다. 거리



로는 1,800자를 기리고차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중간바퀴(b)가 10회 회전하는 동안에 윗바퀴(c)가 한 번 회전하여 기리고차의 이동 거리는 18,000자가 된다. 18,000자는 13.75리(里)로, 현재의 5.4km 정도에 해당한다.

기리고차는 0.5리를 가면 종이 한 번 울리고, 1리를 갔을 때에는 종이 여러 번 울리며, 5리를 가면 북이 한 번 울리고, 10리를 갔을 때는 북이 여러 번 울린다. 수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종소리와 북소리의 횟수를 기록하여 거리를 계산하였던 것이다.

기리고차 이전의 측량법은 새끼줄이나 노끈을 자처럼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새끼줄이나 노끈은 물에 젖기만 해도 길이가 달라져 길이를 재는 도구로는 부적합했다. 이와 달리 기리고차는 톱니바퀴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수레바퀴의 이동에 따라 거리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직선이든 곡선이든 측정이 가능했다.

기리고차가 처음 제작된 조선 세종 이후 지도 제작이 활발해졌다는 측면에서 기리고차는 거리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각종 사업에 큰 힘이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농업 사회인 조선에서 정확한 토지 측량은 합리적인 세금 징수로 이어졌기 때문에 기리고차는 국가 통치를 체계화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자(尺) : 길이의 단위.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 30.3cm에 해당한다.

28. 위 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점]

- ① 기리고차의 구조
- ② 기리고차의 종류
- ③ 기리고차의 용도
- ④ 기리고차 사용의 의미
- ⑤ 기리고차의 최초 제작 시기

29. ㉠의 원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원주율을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려 3.14로 정하는 것
- ② 돌고래가 초음파의 반사를 이용하여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 ③ 고정도르레를 이용하면 물체의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
- ④ 시계의 초침이 60 눈금 움직이는 동안 분침은 이에 비례하여 한 눈금 움직이는 것
- ⑤ 사람이 걸어서 이동할 때는 한 시간 걸리는데 자동차로 이동할 때는 10분 걸리는 것

30. 위 글을 참고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왼쪽 지도는 10리(里), 즉 4km마다 방점(傍點)을 찍어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 이 지도의 A, B, C는 방점을 나타낸다.

- ① 기리고차가 A를 출발하여 B에 도착했을 때, ‘윗바퀴’는 한 바퀴를 채 못 돌았을 것이다.
- ② A에서 출발한 기리고차가 B에 도착했을 때와 C에 도착했을 때, 각각 북이 여러 번 울릴 것이다.
- ③ ‘A-B’ 구간에서 종이 한 번 울리는 횟수와 ‘B-C’ 구간에서 종이 한 번 울리는 횟수는 동일할 것이다.
- ④ A에서 C까지의 구간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일 경우 기리고차를 이용한 거리 측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 ⑤ A에서 C까지의 거리를 새끼줄이나 노끈을 이용하여 잰다면 날씨에 따라 측정된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표고 8백에서 살다가 6백으로 내려오니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 얼마 만에 듣는 계명성(鷄鳴聲)인가. 해를 치며 새벽을 알려 주는 수탉의 울음소리가 가히 우렁차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첫닭이 운다. 어떤 때는 5시에 울기도 하는데 무슨 까닭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고단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시간 늦게 깨우는지도 모르겠다.

이와 같이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알려 주는 이 장닭 우는 소리를 듣고 몇 사람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날까? 닭 우는 소리는 자명종 시계 소리에 비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 않고 훨씬 여유가 있어 좋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낸 소리와 자연의 소리는 이렇듯 다르다.

나는 요즘 웅달샘으로 물 길으러 가는 일에 재미를 누리고 있다. 개울물을 뜨러 가는 일보다 더 정감이 있다. 가는 길에는 **솔가리**가 수북이 쌓여 있어 폭신평신했던 그 감촉이 마치 카펫 위를 걷는 것 같다.

예전 시골에서는 이 솔가리를 갈퀴로 긁어 불쏘시개나 빨감으로 썼다. 장날이면 솔가리를 지게에 한 짐씩 지고 나와 팔기도 했었다. 나는 빨감보다도 눈으로 보고 발로 밟는 그 맛이 더 좋아 그대로 둔다. 나무들이 떨군 그 잎은 그 나무 아래서 삭아 거름이 되어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자연의 순환 법칙이다. 생과 사의 소식도 바로 이런 데에 있을 것이다.

이 샘에서 물을 길어 때마다 문득 고려 시대 **이규보의 시**가 연상된다.

산중에 사는 스님 달빛이 너무 좋아
물병 속에 함께 길어 담았네
방에 들어와 뒤미처 생각하고
병을 기울이니 달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네

물을 길으러 갔다가 때마침 우물에 달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달을 함께 길어 담는다. 아마 청명한 가을밤이었을 것이다.

밤이 이슬하도록 글을 읽다가 출출한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실까 해서 우물로 물을 길으러 간다. 길어 놓은 물보다 새로 길은 물이라야 차 맛이 새롭다. 차 맛은 곧 물맛에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마침 등근달이 우물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바가지로 물과 함께 **달을 길어 담는다**. 하던 일을 마저 하다가 뒤늦게 생각이 나서 길어 온 샘물을 끓이려고 다로의 차관에 물병을 기울이니 함께 길어 온 달은 그새 어디로 새어 나가고 없다.

샘물과 달과 차가 어울린 가을밤 산중의 그윽한 풍류이다. 내가 이 웅달샘의 이름을 급월정(汲月井)이라고 한 것도 이런 정취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로 지은 귀틀집의 방이 얼마나 크냐고 누가 물기에 두 평 짜리 **단칸방**이라고 했다. 그 방으로 드나드는 문지방 위에 폭한 자 너비의 선반이 내가 서서 손을 뻗칠 수 있는 높이로 걸려 있다. 그 위에 **몇 권의 책과 옷을 담은 광주리**가 놓여 있다. 옛 그리스의 철인 **디오게네스의 통**에 견준다면 궁궐인 셈이다.

나는 이 새로운 거처에서 더욱 단순해지고, 더욱 진실해지고,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온화해지고, 더욱 친절해지고, 더욱 인정이 깊어지고자 노력할 것이다.

- 법정, 「웅달샘에서 달을 길다」 -

(나) 내 벗이 밋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령고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의 광명이 너만 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구천(九泉) : 깊은 땅 속.

(다) 헛된 이름 따라 허덕허덕 바삐 다니지 않고,
평생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을 찾았다녔네.
따스한 봄 잔잔한 호수엔 안개가 천 리에 끼었고,
맑은 가을날 옛 기슭엔 달이 배 한 척 비추네.
서울 길의 붉은 먼지 꿈에서도 바라지 않고,
초록 도롱이 푸른 샷갓과 함께 살아간다네.
어기여차 노랫소리는 뱃사람의 흥취이니,
세상에 옥당(玉堂)* 있다고 어찌 부러워하리오.

不爲浮名役役忙 生涯追逐水雲鄉
平湖春暖烟千里 古岸秋高月一航
紫陌紅塵無夢寐 綠簑青蓑共行藏
一聲欸乃歌中趣 那羨人間有玉堂
- 설장수, 「어옹(漁翁)」 -

* 옥당(玉堂): 문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의 별칭.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 ②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 ④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견디기 힘든 삶의 고통을 자연을 통해 해소하고 있다.

32. (가)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점에 대해 토의하였다. 토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의문점	토의 내용
'계명성'과 '술가리'라는 소재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속에서도 부지런히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함일 거야. ... ①
이규보의 시가 연상된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가 물을 끄는 행위에서 그윽한 멋과 흥을 느꼈기 때문일 거야. ... ②
'달을 길어 담는다'에서 알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차를 끓이기 위해 물을 끄는데, 우물 속에 달이 비친 상황을 나타낸 거야. ... ③
'몇 권의 책과 옷을 담은 광주리'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욕심이 없고 소박한 화자의 생활을 나타낸 거야. ... ④
'디오게네스의 통'과 '단칸방'을 비교한 이유는 무엇일까?	화자가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함일 거야. ... ⑤

3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제목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제4수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은 '술'의 속성을 비유한 말이다.
- ③ 제4수의 '눈서리를 모르느냐'와 제5수의 '사시에 푸르니'는 대상의 덕성을 부각하는 이유가 된다.
- ④ 제5수에서는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를 통해 대상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가 대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설장수는 '어옹'에서 공간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거리를 두려 하였고, 강호(江湖)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였다.

- ① '헛된 이름'과 '붉은 먼지'는 속세와 관련 있는 특성이군.
- ② '물과 구름 가득한 마을'은 강호를 상징하는군.
- ③ '천 리'는 강호와 속세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낸 것이군.
- ④ 청각적 심상을 통해 강호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설의적 표현으로 속세와 거리를 두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군.

35. [A]와 [B]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② 사물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 ③ 계절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⑤ 감탄사로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36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치원생이 아무렇게나 한 낙서와 같은 그림을 화가가 전시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그림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그림을 두고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림은 어떠한가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의 외부에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사진처럼 대상을 정교하게 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대표적인 화가들은 15세기 르네상스의 화가들이다. 그들은 그림을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보고 실물을 방불케 하는 정밀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인 원근법이나 명암과 같은 외부 재현의 기술을 연구하여 개발하였고, 그런 기술들을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19세기까지 서양 미술계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였다.

(다) 한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게다가 19세기 말 ㉠ **사진기의 발명**은 화가들 사이에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아무리 실물을 빼닮은 이미지를 그려 내도 사진만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들은 새로운 ㉡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결과 그들은 외부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상상을 통해 자신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방법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후 내면 표현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은 사회에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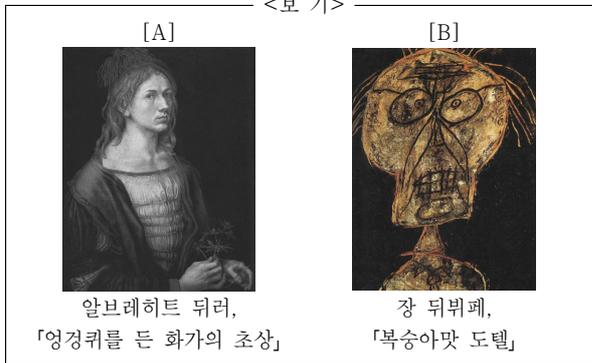
(라) 이런 변화는 르네상스 이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서양의 미술사에 존재해 왔다. 한 시대를 지배하는 관점이 다른 관점과 부딪혔다가 밀려나고, 다시 부딪치며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 서양 미술사에는 수없이 있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그림은 재평가되기도 했다.

(마) 그림에 관하여 사람들은 하나의 관점을 취하기 쉽다. 그리고 그와 다른 관점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쉽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관점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유치원생의 낙서와 같은 그림을 감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외부의 재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거부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면의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공감할 수도 있는 것이다.

36.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같은 그림에 대한 상반된 반응
- ② (나): 사물의 외부 재현을 중시하는 관점
- ③ (다): 화가의 내면 표현을 중시하는 관점
- ④ (라): 외부 재현을 중시하는 관점에 대한 비판
- ⑤ (마): 그림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37.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A], [B]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과학적 원근법과 명암 등을 고려하여 그린 그림이겠군.
- ② [A]는 그림을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 보는 관점에서 그린 것이겠군.
- ③ [B]는 화가의 주관적인 내면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그림인 것 같아.
- ④ 글쓴이의 입장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A]보다 [B]를 높이 평가하겠군.
- ⑤ 사실적 재현을 중시한 화가라면 [B]보다 [A]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을 거야.

38. ㉠이 당시 화가들에게 미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밀한 외부 재현의 욕구를 약화시켰다.
- ② 학습과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 ③ 상상력보다 관찰력이 더 필요함을 깨닫게 하였다.
- ④ 동양 미술보다 서양 미술이 우수함을 느끼게 하였다.
- ⑤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의 우수성을 느끼게 하였다.

39. ㉠를 대체할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1점]

- ① 돌파구
- ② 배출구
- ③ 분화구
- ④ 출입구
- ⑤ 해방구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일제 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가 팔 하나를 잃은 만도는 전쟁에 나간 아들 진수가 돌아온다는 통지를 받고 마음이 들떠 정거장으로 나간다. 그러나 진수는 다리 하나를 잃은 채 나타나고, 만도는 눈앞이 어질해진다. 속이 상한 만도는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신다.

주막을 나선 그들 부자는 논두렁 길로 접어들었다. 아까와 같이 만도가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수를 앞세웠다. 지팡이를 짚고 **찌우똥찌우똥** 앞서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팔뚝이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느릿느릿 따라가는 것이다. 손에 매달린 고등어가 대고 달랑달랑 춤을 춘다. 너무 급하게 들이부어서 그런지, 만도의 뺨속에서는 우글우글 술이 끓고 다리가 휘청거린다. 쿡구멍으로 더운 숨을 훑훑 내뿜어 본다. 정신이 아른거린다. 좋다.

“진수야!”
 “예.”
 “니 우짜다가 그래 똥노?”
 “전쟁하다가 이래 안 됐심니꼬, 수루탄 쪼가리에 맞았심데.”
 “수루탄 쪼가리에?”
 “예.”
 “음…….”
 “얼른 낫지 않고 막 썩어 들어가기 땀에 군의관이 찰라 버럽디더. 병원에서예.”
 “…….”
 “아부지!”
 “와?”
 “㉠ 이래 가지고 나 우째 살까 싶습니더.”
 “㉡ 우째 살긴 뭘 우째 살아. 목숨만 붙어 있으면 다 사는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
 “㉢ 나 봐라, 팔뚝이 하나 없어도 잘만 안 사나. 남 봄에 좀 덜 좋아서 그렇지, 살기사 왜 못 살아.”
 “㉣ 차라리 아버지같이 팔이 하나 없는 편이 낫겠어예. 다리가 없어 노니 첫째 걸어댕기기에 불편해서 똥 죽겠심디.”
 “야야, 안 그렇다. 걸어댕기기만 하면 뭐하노. 손을 제대로 놀려야 일이 뜻대로 되지.”
 “그릴까예?”
 “그렇다니. ㉤ 그러니까 집에 앉아서 할 일은 니가 하고, 나 댕기메 할 일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되겠나, 그제?”
 “예.”
 진수는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만도는 돌아보는 아들의 얼굴을 향해서 **지그시** 웃어 주었다.

…(중략)…

개천 독에 이르렀다. 외나무다리가 놓여 있는 그 시냇물이 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밀바닥이 모래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외나무다리 위로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독에 퍼지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걸어 올리기 시작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아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느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자아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민다.
“.....”

진수는 껍 난처해 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으로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아 어서!”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업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려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까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찌**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니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A] 얼굴을 하며, ‘나꺼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렸더라면 나왔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 하근찬, 「수난이대(受難二代)」 -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다.
- ②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 ③ 대화와 심리 묘사가 함께 나타나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라 분위기가 긴박해지고 있다.

41. [A]를 영화로 제작하기 위한 회의에서 연출자가 요구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향 감독은 다리 위에서 만도의 목소리만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 미리 녹음해 주세요.
- ② 만도 역을 맡은 배우는 외나무다리를 건널 때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카메라 감독은 마지막 장면에서 용머리재가 두 사람을 바라보는 느낌이 살도록 촬영해 주세요.
- ④ 진수 역을 맡은 배우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만도를 언짢아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⑤ 카메라 감독은 만도가 진수를 업고 일어서는 장면에서 힘을 쓰는 만도의 얼굴 표정이 부각되도록 촬영해 주세요.

42.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중증 질환이나 실직 등의 위기에 처한 사람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통해 그 상처를 극복한다. 각 단계들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주변의 격려나 지지가 중요하다.

I 단계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
↓	
II 단계	울분, 좌절 등의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하며, 현실을 받아들인다.
↓	
III 단계	가치와 행동, 생활양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심리적 극복이 이루어진다.

위 글은 만도와 진수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상처의 치유와 극복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 ① ㉠에서 진수는 I 단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 ② ㉡에서 만도는 격려를 통하여 진수를 II 단계로 이끌려 하고 있어.
- ③ ㉢에서 드러난 만도의 태도로 볼 때, 만도는 III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
- ④ ㉣에서 진수는 만도의 뜻에 따라 I 단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⑤ ㉣에서 만도는 진수가 I 단계를 벗어나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43. 위 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찌우똥찌우똥 : 진수가 불안하게 걷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지그시 : 만도의 웃음이 울분을 억누르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 ③ 버쩍 : 몸짓으로 아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꼭 :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정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찌 : 아버지에게 업혀야 하는 아들의 미안함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44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번개는 대기 중에서 전기의 방전이 일어나 번쩍이는 불꽃을 말한다. 흔히 전기는 구리선처럼 전기가 잘 흐르는 도선을 따라 흐른다. 그런데 기체에서도 전기가 흐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전이라고 한다. ㉠ 어떻게 도선이 없는데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일까?

원자에는 양전하를 띤 핵과 음전하를 띤 전자가 들어 있다. 물체는 보통의 경우, 양전하의 전하량과 음전하의 전하량이 같은 전기적 중성 상태이다. 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한 물체의 전자들이 다른 물체로 이동하게 되어 두 물체 모두 양전하와 음전하의 전하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때 전자가 이탈된 물체를 양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하고, 전자를 얻은 물체를 음전하로 대전되었다고 한다. 대전된 물체는 다시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다.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된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전하가 이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두 물체 사이에 도선이 있으면 전하가 쉽게 이동한다. 그러나 두 물체가 중성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매우 강하면 도선이 없어도 전기가 흐를 수 있다.

뜨거운 여름, 태양에 의해 가열되어 가벼워진 지표의 공기는 상승 기류를 형성한다. 상승 기류로 인해 적란운이 만들어진다. 산봉우리 모양을 한 적란운 속에는 작은 물방울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상승 기류에 의해 서로 부딪치면 음전하와 양전하로 대전된다. 전자를 잃어 양전하를 띤 입자는 상승하고,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띤 입자는 하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름의 상층부는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하층부는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인다. 상층부와 하층부에 대전된 입자가 많이 쌓이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방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빛이 바로 번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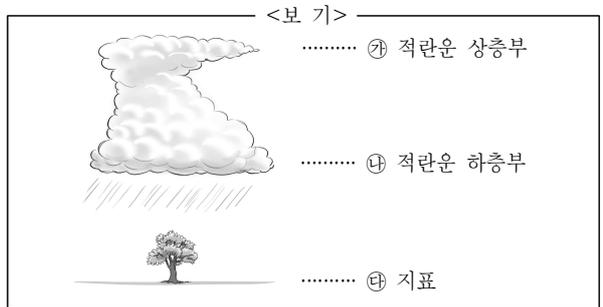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는 구름 속의 번개와는 다른 과정으로 발생한다. 대전된 물체를 중성 물체에 가까이 대면 대전된 물체와 가까운 쪽에 있는 중성 물체의 표면은 대전된 물체와 반대되는 전하를 띠게 된다. 구름과 지표 사이의 번개는 이 때문에 발생한다. 적란운의 밑바닥으로부터 음전하를 띤 공기 기둥이 동아줄처럼 지표 가까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공기 기둥은 중성 상태의 지표가 양전하를 띠도록 유도한다. 공기 기둥의 음전하가 유도된 지표의 양전하에 점점 가까워져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방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때의 번개는 지표로 내려오던 음전하들이 지표 상의 양전하와 만나 구름 쪽으로 되돌아가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흔히 쓰는 말 중에 번개가 떨어졌다는 말은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흔히 번개를 벼락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벼락은 구름과 지표 사이에서 발생하는 방전만을 말한다. ㉡ 벼락은 전체 ㉢ 번개 중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번개에 비해 위험하다. 벼락은 100W 전구 7,000개를 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만큼 엄청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44.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적절한 것은?

- ① 번개의 발생 원리
- 방전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 ② 번개와 구름의 관계
- 지표로 전기가 흐르는 이유를 중심으로
- ③ 번개가 발생하는 조건
- 적란운 내부 상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 ④ 번개의 종류와 그 특성
- 구름의 종류와 위치를 중심으로
- ⑤ 번개의 피해를 막는 방법
- 물질이 대전되는 원인을 중심으로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의 빈도보다 ㉡와 ㉢ 사이에서 발생하는 번개의 빈도가 더 높다.
- ② ㉠에 양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에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이면 그 사이에서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
- ③ ㉡ 밑의 공기 기둥은 ㉢을 대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에 음전하로 대전된 입자가 쌓여 있어야 ㉠과 ㉢ 사이에서 번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에서 내려오던 음전하가 ㉢의 양전하를 만나 ㉢로 돌아가면서 번개가 발생한다.

46.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기는 도선보다 기체에서 더 잘 흐르기 때문에
- ② 중성의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대전되기 때문에
- ③ 대전된 물체는 중성으로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 ④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를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 ⑤ 대부분의 기체는 양전하나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47. 밑줄 친 부분들의 관계가 ㉠과 ㉡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1점]

- ① 나는 사과를 사기 위해 과일 가게에 갔다.
- ② 소년이었던 그가 어느새 청년이 되어 있었다.
- ③ 비행기를 타고 가느니 차라리 배를 타고 가겠다.
- ④ 우리 거래의 고유문화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이어준다.
- ⑤ 최선을 다한 삶을 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에 사람들은 국어 사전을 찾아서 의미를 확인한다. 하지만 국어사전에는 단어의 풀이 외에도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먼저 표제어의 모양을 살펴보자.

사-회사¹(私會社) ㉠ 영국의 회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한 형태.

사회-사²(社會史) ㉡ 민중의 일상생활과 생활 습속에 대한 조사나 연구를 통하여 사회 전체의 생생한 역사 서술을 목표로 하는 학문.

‘사회사’라는 표제어에 있는 ‘-’ 기호는 단어의 내부 구조를 알려 준다. 즉 ‘사회사¹’은 ‘주식회사’의 한 형태이므로 ‘사-회사’와 같이 분석되는 반면, ‘사회사²’는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와 관련이 있으므로 ‘사회-사’와 같이 분석된다. 즉 ‘사회사¹’과 ‘사회사²’는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표제어에는 ‘-’ 기호가 아닌 ‘^’ 기호가 붙은 경우도 있고 아예 중간을 띄어 놓은 경우도 있다. 먼저 ‘^’ 기호는 한글 맞춤법의 ‘붙여 쓸 수도 있고 띄어 쓸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보여 준다. 즉 ‘두음^법칙’은 ‘두음 법칙’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음법칙’과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승의 날’처럼 중간에 아무 표시 없이 띄어 있는 단어는 항상 띄어 써야 한다.

단어를 정확하게 쓰려면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맥락이나 상황에서 어떠한 말과 결합하여 사용되는지도 알아야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문법 정보’라고 하여 ‘(())’와 같은 괄호 안에 제시해 주고 있다. 국어사전에서 ‘나잇값’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나잇값 ㉢ ((흔히 ‘하다’, ‘못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 나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제발 나잇값 좀 해라. / 나잇값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장가를 가겠습니까?

제시된 뜻풀이만으로는 ‘나잇값’이 어떠한 말과 어울려 쓰이는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흔히 ‘하다’, ‘못하다’ 따위와 함께 쓰여))’라는 문법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나잇값’이 실제 가격을 나타내는 ‘밥값’, ‘담배값’과는 달리 ‘하다’, ‘못하다’라는 말과 주로 어울려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정보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또 다른 정보는 해당 표제어가 주로 활용하는 형태이다. ‘더불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더불어’ 꼴로만 쓰여))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다.’로 되어 있고, ‘못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로 ‘못살게’의 꼴로 ‘굶다’와 함께 쓰여)) 성가시고 견디기 어렵게 하다.’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뜻풀이만으로는 알 수 없는 표제어의 활용 형태에 관한 문법 정보를 ‘(())’를 써서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48.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은?

- ① 국어사전에 사용된 기호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 ② 국어사전을 찾는 것을 생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③ 국어사전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④ 국어사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⑤ 국어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에는 어떤 순서로 찾아야 하는가?

49. 위 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 프랑스 어 과목을 공부하다가 ㉠ ‘불문법’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프랑스 어의 문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 이 단어와 같은 글자로 된 단어가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이라는 ㉢ 뜻풀이를 달고 있더군요. ㉣ 이 두 단어는 형태는 같은데 그 의미가 다른 셈이죠. 한번 사전을 잡으니 흥미가 생겨서 ㉤ ‘프랑스 어’도 찾아보았습니다. 표제어를 보니 ‘프랑스’와 ‘어’는 붙여 써도 되고 띄어 써도 되더군요.

- ① 학생이 찾은 ㉠은 ‘불-문법(佛文法)’이로군.
- ② 학생이 보게 된 ㉡은 ‘불문-법(不文法)’인 거지.
- ③ ㉢에는 단어의 뜻 외에 문법 정보도 포함되어 있군.
- ④ ㉣은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어.
- ⑤ ㉤은 사전에 ‘프랑스^어’라고 표기되어 있겠군.

50.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표제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 준다.
- ② ㉠, ㉡과 같은 정보는 모든 표제어에 필수적으로 제공된다.
- ③ ㉠은 ‘더불다’가 ‘더불어’ 외의 꼴로는 쓰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 ④ ㉡은 ‘못살다’가 ‘못살게’로 활용되면 주로 ‘굶다’와 결합한다는 것을 알려 준다.
- ⑤ ㉢은 ‘못살다’가 ‘못살게’ 이외의 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